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준공식 엄숙히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평양에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가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25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 준공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인민군렬사추모탑 양옆에는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한없이 뜨거운 혁명적

적동지와 애송고한 도덕의리의 세계를 펼치시며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승리와 영광, 존엄을 만방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러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전쟁로병대표들, 조선로동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일군들, 련사유가족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공로자들, 시내군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주전선평양지부 대표가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과 외국 손님들이 준공식에 초청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 준공식시작을 선포하였다. 애국가가 장중하게 연주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 준공식을 끝으시었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화환진정대에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전체 조선인민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군렬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자기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인민군렬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가》가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특근,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로

동당과 국가, 군대 책임일군들과 전쟁로병대표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 외국 손님들, 해외동포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를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의 송고한 혁명적동지와 애송고한 도덕의리의 상징인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명예비가 모셔져있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모는 조형예술적으로 특색있게 형성된 인민군렬사추모탑을 중심으로 세워진 문주와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 영웅전사들을 추모하는 현시비, 군상들, 500여명이 안치된 련사들의 묘로 이루어져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과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7월 25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리원조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대표단성원들인 장업수 외교부 상무부 부장, 가정안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 부주임, 진봉상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병지강 룡녕성 부성장, 진위군 길림성 부성장, 류홍재 우리나라 주재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리원조 부주석을 비롯한 대표단성원들과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었다.

석상에서 리원조부주석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따뜻한 인사와 구두천서를 전달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투쟁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대표단을 접견해주시는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중국당

과 정부를 대표하여 뜻깊은 7.27을 맞이하고있는 조선인민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피로써 맺어진 중조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빛내어나갈 사명을 안고 조선을 방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는것을 기쁘게 생각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중조 두 나라는 친선적인 림방이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말하였다.

중국당과 정부는 두 당, 두 나라 로세 대령도자들에게서 친히 마련하고 가꾸어주신 중조친선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중앙령도집단은 조선당과 정부와 함께 호상 존중하고 신뢰하며 친선적인 교류와 협조를 진행하여 중조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습근평주석을 총서기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령도집단과 중국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당과 정부에서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중화인민공화국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당과 정부, 중국인민의 사심없는 국제주의적지원과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이 조선전쟁에 참전하여 세운 위훈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대를 이어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조중친선의 불멸의 생활력이 쌍방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더욱 힘있게 과시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손님들과 중조 두 나라 관계의 강화발전과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문제를 비롯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었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에예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리원조부주석은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사의를 표시하시고 대표단 전체 성원들, 주

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7월 24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이라샤히 부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수리아아랍공화국대표단을 접견하시었다.

여기에는 대표단성원들과 하이쌌 싸이드 주조 수리아아랍공화국 립시대리대사가 참가하였다.

김기남,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손님들과 뜨겁게 상봉하시고 담화를 나누시었다.

석상에서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부총비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보내는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각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드리었다.

부총비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에 즈음하여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과 수리아인민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투쟁에서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그는 수리아아랍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존재하는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승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먼곳에서 우리 나라에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바샤르 알 아싸드대통령과 수리아인민에게 전투적인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여러차례 받은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부총비서를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하시면서 수리아당과 정부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한것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손님들과 우리 나라와 수리아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지역정세를 비롯한 호상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시었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화기에예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아브둘라 알 아흐마르 부총비서는 성의껏 마련하여온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사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해내의 온 겨레는 류다른 환희와 걱정속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민족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수많은 국제기구들도 이번 전승절경축행사를 백두의 선군령장을 높이 모시고 전승의 력사를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공화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전례없는 대경사라고 찬탄하면서 축하와 축전, 축하편지를 보내오고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반제반미대전에서 승리한 것은 공화국의 승리는 궁지이며 자랑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은 공화국이 전인민적인 영웅적투쟁을 벌려 력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도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열어놓은 전쟁이었다.

미국은 창건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청소년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켜보려고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고 15개 추종국가군대를 타도하고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열어놓은 전쟁이었다.

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집단주의와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3년간의 가렬적절절한 전쟁에서 영예로운 승리를 이룩하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가 여지없이 깨어지고 인민의 반제자주위업수행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다.

승리의 7. 27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범, 결실한 평균술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강철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 천변만화의 지략은 적들의 무력, 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 전략술적우세로 짓부셔버리며 전쟁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게 한 근본요인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전쟁승리에 한사람같이 불러일으키시어 귀중한 공화국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었고 조선인민은 침략자 미제를 때려부신 영웅적인민으로 존엄떨치게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탁월한 령장을 모시고 자기 위업의 정당성,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무장한 군대와 인민의 정성으로 남김없이 발휘할 때 그 어떤 침략자도 능히 타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하였다.

영웅적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동방에 거연히 일떠선 자주의 나라, 인민의 나라인 공화국을 영예롭게 지켜낼수 있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정치, 군사적합은 더욱 강화되고 반제반미투쟁은 새로운 양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전승의 력사는 불세출의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빛나게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미국의 총포성없는 대결에서 련전전승을 안아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군술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온 나라가 금성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단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없이 제국주의자들

의 기를 꺾고 천만대적을 위락 퍼락하시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만년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전승의 력사는 오늘날도 영원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편의 천출위인이시며 탁월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군술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온 나라가 금성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단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없이 제국주의자들

의 기를 꺾고 천만대적을 위락 퍼락하시며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업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만년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의 기치높이 공화국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은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어 전승의 력사는 오늘날도 영원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또 한편의 천출위인이시며 탁월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령군술에 의하여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나고 온 사회의 일심단결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온 나라가 금성철벽의 요새로 다져졌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단 한치의 양보나 후퇴도 없이 제국주의자들

속시킬수 없으며 온 겨레가 펼쳐 일어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체 조선 민족이며 민족이 힘을 합쳐 통일대행진을 힘차게 벌릴 때 반세기 이상에 걸친 겨레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격폐된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야 한다.

리명박 《정권》 5년동안 파산된 북남관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것은 민족의 불행이며 비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동족대결의 구태의연한 태도와 정책을 버려야 하며 외세와의 동족압살공조를 그만두고 민족공조의 길에 나서야 한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를 확립하는것은 전쟁을 막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더는 미룰수 없는 요구이다.

조선에서는 의연 엄혹하고 공화국에서는 가늘고 말쑥한 시련도 많지만 최후승리는 공화국에 있다.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것이다.

절 세 위 인 들 을 모 시 여 위 대 한

전승의 기적을 안아오신 희세의 령장

축포가 오른다.
반미대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던 60년전의 그날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끝없는 환희와 추억을 불러오며 다시금 7.27전승의 축포가 터져 오른다.
전승이란 무엇인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전승의 의미는 그리 평범치 않다. 단순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건국 이래 100여 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 적이 없다는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버렸다는 공지이며 존엄이다. 대국들의 틈에 끼워 약소민족의 설움을 통탄해 야만 했던 피관람던 민족이 자기 손으로 일떠세운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켜낸데 대한 소중한 추억이며 대를 두고 전해가야 할 애국의 넋이다.

공화국이 침략 세력의 불의의 침공을 좌절시키고 즉시적인 반공격전을 개시할 수 있는것도, 전쟁 3일만에 서울을 해방하고 불과 몇달만에 남과 조국의 거의 전 지역을 해방할 수 있는것도 위대한 군사전술과 령공술이 안아온 기적이었다.

조선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규모가 가장 큰 전쟁이었다. 이 전쟁은 비록 크지 않은 조선반도의 한정된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나 참전국수와 참전병력수 그리고 소비된 전략물자를 놓고보면 세계적규모의 싸움이었다. 미국은 조선반도를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적 패권실현의 교두보로 여기고 조선전쟁에 방대한 규모의 병력과 군사장비들을 투입한것은 물론 전정에서 이름을 날렸다는 별의별 《장군》들도 선 발하여 파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병력과 장비의 우세로 전쟁을 속전속결해치우겠다는 초기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조선전쟁의 수렁에 빠져 3년간이나 허우적거리지 않으면 안되었던 마침내는 영웅적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정전협정의 함복서에 수료하고야말았다.
전승의 기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는 오직 전설적명장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전설적명장의 그 이상앞에서는 맥아더의 《크리스마스총공세》도, 린치웨이의 《하기 및 추기공세》도, 클라크의 《초토화작전》도, 아이젠하워의 《신공세》도 맥을 추지 못했다. 미국도서 《전쟁과 미국》은 이렇게 썼다.
《력사적으로 관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이런 장군들을 한두명 파견하여 전쟁의 승리를 획두하는 데 슬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키는 무덤이었다. 바로 이 전쟁에서 1명의 대통령과 2명의 전구총사령관, 1명의 전선사령관이 패전의 책임을 지고 실각, 철직되었고 1명의 전선사령관이 죽었으며



전승열병광장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1명의 대통령과 1명의 전구총사령관, 1명의 전선사령관이 패전 수처스러운 대아메리카의 비극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비극은 여기에 더 있는것이 아니다. 조선에는 위대한 령장께서 계시고 그이는 안할 때 이것은 심히 유감스럽고 을 다 합쳐도 비길수 없는 천하 제일명장임을 모르고 전승도화신러 불을 질렀다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군사적지략에서만이 아니라 담력과 배짱,

신념과 락관, 인격과 정치철학에서도 최고이신 희세의 전설적명장이시다.

전화의 나날 전선의 병사들이 대학으로 소환되어 총을 펜으로 바꾸어 쥐는 현실이 펼쳐지고 과학원이 창설되었으며 무상치료를 실시할 때 대한 내각결정이 채택되는 등 전설같은 일들이 생겨날수 있는 것은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세계, 신념과 락관의 세계를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였다.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시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오래도록 전쟁에 의해 파괴된 시내를 부감하시던 이께서는 동행한 일군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평양을 새로 건설해야겠는데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서로 얼굴만 쳐다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따라 이 땅우에 승리의 자랑스러운 령사를 새겨갈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령사적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뛰어난 지략, 령공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전쟁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탁월한 전략전술적방침들과 전법들을 내놓으시어 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안기고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였다.

은 우리 나라의 특성과 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는 적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창조된 우월한 전법이다. 이 전법은 적의 현대적무기의 타격으로부터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적은 무

시기의 경험과 적비행기들의 행동특성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어 저격무기들을 가지고 비행기들을 좌절시키기 위한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이께서는 적의 공중타격에 대한 방어를 고사화력과 비행대에만 매달리는데 대

비행으로 전술을 바꾸었지만 미국의 《공중우세》는 맥을 추지 못하였다. 바다에서의 어뢰정공격전법도 마찬가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인민군해병들의 정치사상적우월성에 기초하여 어뢰정으로 오만한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연속적인 타격전, 적의 배후에서의 대부대에 의한 제2전선형성,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에 맞게 직사포를 고지우에 올려 싸운 직사포리용전법, 정규전과 유격전, 대부대전과 소부대전을 용해 배합하며 산악전과 야간전을 잘할 때 대한 독창적인 군사전략사상...

동서고급의 그 어느 병사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이러한 주제적인 군사사상과 전법앞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은 무릎을 꿇고말았다.

본사기자 김철호

세계전쟁사에 없는 신비의 전법들

우리 나라의 특성과 기술적우세에 의존하고있는 적들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창조된 우월한 전법이다. 이 전법은 적의 현대적무기의 타격으로부터 유생력량과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적은 무

어 지적하시고 경기관총, 중기관총, 반방공총, 보병총으로 장비한 비행기사냥군조를 보병연대마다 조직하여 적비행기와 싸움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하시고 적비행기와 전투방법문제, 화력집중을 꾸리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밝혀주시였다. 전국적범위에서 광범히 진행되는 비행기사냥군조운동의 맹렬한 타격에 직결된 적비행기들은 주안으로부터 야간으로, 저공으로부터 고평으로, 단독비행으로부터 편대

한 대담한 공격을 진행하여 격파할 때 대한 독창적인 전법도 내놓으시였다. 사실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까부신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는것과 같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있었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현대적무기보다 더 위력한 인민군해병들의 정치사상적힘을 굳게 믿으시고 허장성세하는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은밀히 기동하며 근거리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께서는 가르치신대로 인

민군해병들은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떠다니는 섬》이라고 하던 미해군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함으로써 세계해전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무장장비, 현대전의 특성에 맞는 산악전, 갱도전, 습격전, 비행기사냥군조운동, 땅크사냥군조운동을 비롯한 전법들은 세계전쟁사상 그례를 찾아볼수 없는 주제적이며 독창적인 전법들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창조된 비행기사냥군조운동도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조하신 독창적인 전법이다.

이께서는 저격무기로 비행기를 좌절군 함일무장투쟁

한 대담한 공격을 진행하여 격파할 때 대한 독창적인 전법도 내놓으시였다. 사실 어뢰정으로 적중순양함을 까부신다는것은 닭알로 바위를 깨는것과 같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있었다. 그러나 주석께서는 현대적무기보다 더 위력한 인민군해병들의 정치사상적힘을 굳게 믿으시고 허장성세하는 적의 약점을 리용하여 은밀히 기동하며 근거리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이께서는 가르치신대로 인

민군해병들은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바다의 떠다니는 섬》이라고 하던 미해군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파함으로써 세계해전력사에 있어 본적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선군침송의 메아리

언제인가 남조선의 어느 청년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미국력사에 영원히 남을 7월의 침매》라는 제목의 글이 실리였다.
《6.25전쟁도발자들은 오 관했다. 그들은 복을 너무도 몰랐다. 백악관과 펜타곤은 상대를 건국이 갖 선 포되고 유격군이 정구군으로 개편된지 2년밖에 안되는 《유아》로만 여겼다.

이것은 신생강자와 맞대 들어 호된 타격을 받았다. 잘못 고른 상대였던것이다. 미국을 준비백색케 한 북의 실체는 어땠는가. 일제의 100만 관동군과 단독으로 싸워이긴 강군과 포로써 찾은 조국을 지켜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는 강인이 거기에 있었다. 정의로우 수호전쟁의 전투에는 삼도왜적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

의 령장 김일성대장군께서 계셨다. 위대한 령장을 모신 군민은 무적멸승이다. 미국은 이것을 몰랐다. 상대를 모르는 우둔한자는 백전백패하기마련이다. ...참으로 7월은 이복에 있어 위대한 령장의 주위에 군민이 일심단합해 조국수호에 결사 분기할 때 멸승불패함을 보여준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달이었다. 반면에 미국에는 《강대성의 신화》가 부서져버린 수치와 절망의

달이었다. ...경모하는 김정일장군께서는 7월의 전승을 위대한 선군정리로 령사에 찬연히 부상시켜나가셨다. 명장이 있는 곳에 승전고가 울리기마련이다. 우리 민족이 우리르

는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는 서방의 고립압살정책에도 민족의 존엄과 사회주의를 생명같이 지켜주며 빛내여주는 정지이다. ...북의 래일은 창창하다. 우리 민족은 북의 장래에서

본사기자 리경월

《6월뒤에는 7월이 있다》

통일조국의 래일을 확신한다. 그런 신념에서 《6월뒤에 7월이 있다》는 말을 제삼 강조해두고자 한다. 어떤 침략세력이든 제2, 제3의 6.25를 도발한다면 그 뒤에는 반드시 제2, 제3의 7.27이 따르게 될것이다. ...6월뒤에는 7월이 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웨치는 선언이다. 여기에는 이제 북침이 재발한다면 북민중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에 분기하려는 우리 이남민중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겨레는 영원히 7.27과 함께 있을것이다.》

100여년의 침략전쟁사에서 단 한번의 패전도 몰랐다는 미국, 2차세계대전을 통해 전승국의 《명예》와 《형재》까지 얻어 오만에절대로 오만에진 미국은 북과의 전쟁을 《망칠고 헤엄치기》로 치부했다. 미국은 《북진》이 《줄거은 령행》으로 될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천만에였다. 미국은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을 맞는



정전협정조인장에서 전승의 그날을 돌이켜보는 인민군인들

수기 영원한 승리의 7.27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7.27전승일이 왔다. 세상을 들썩하게 하는 전승 60돐을 맞이하고 보니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 따라 똘똘메를 뚫어놓은 승리를 심장으로 받들고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참된 인 간들을 보았다. 원통계선전투에서 용맹하게 싸운 부소대장과 중상을 당한 몸으로 미군지휘부승격전투를 승리로 이끈 분대장, 전쟁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은 자랑을 안고 전투원들의 앞장에서 용감하게 싸운 포부대 연유판리장 리홍순군관, 통천방어전투에서 불사신처럼 중대를 지휘한 오대홍중대장 등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영웅들이었고 승리자들이였다.

지금도 나는 1953년 6월에 있는 811.7고지습격전투를 잊을수 없다. 당시 적들은 811.7고지에 방어진을 구축하고 《철벽의 요새》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영용한 우리 인민군전사들앞에 그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란 있을수 없었다. 그때도 병정참로 811.7고지습격전투에 참가하였던 나는 비발치는 탄우속을 뚫고 정확히 포사격체원을 제어 놈들의 머리우에 명중포사격을 안기게 하였다. 고지를 점령하고 불과 7명의 전투원들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적들의 령이온 파도식공격을 물리치고 조국의 고지를 끝까지 사수

하였다. 위대한 전승의 날도 나는 불라는 고지우에서 맞이하였다. 그날 나는 《우리가 이겼다.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는 또다시 승리하였다.》고 웨치며 격정에 겨워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전쟁 7.27은 곧 승리의 상징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고 언제나 이기는 내 조국이었다. 그 신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시련많은 육중투쟁의 날 날 더욱 역세게 버려져나갈 수 없는 신념으로, 투쟁의 무기로 간직하고 나는 감행 생활전기간 전향을 강요하는 원수들과 싸워 끝내 승리자가 되어 그림던 조국의 품,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겼다. 전승의 7.27. 그것은 단순한 추억의 7.27이 아니다. 한은 나는 백두의 담력과 배짱, 천재적인 지략으로 침략의 무릎을 쥐락펴락하시는 또 한분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모습에서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 우리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따라 미제와의 전쟁에서 이기었던 이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오늘의 반미전면대결전에서 우리 조국은 전승의 7.27을 최후승리의 7.27로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이다. 비전향장기수 손성모

전승업적 세기를 이어 빛난다

정의의 수호자의 선군길

예순번째의 년를 새기는 전승절을 경축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선군의 총대로 7.27의 전승신화를 련전연승의 기적으로 이어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심에 젖어있다.

일찍이 1960년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에 대한 현지시찰로 선군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 걸음으로 통남산마루에 오르시어 조선을 누리에 펼칠 위대한 선언을 하신 아버지장군님께서 생애의 전기간 백두령상의 담력과 배짱, 비범한 선견지명과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로 나라의 국력강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군력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총대중시, 군사선행의 정치경륜을 지니시고 한평생 선군의 기치높이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리의를 수호하시러 선군장정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장군님이시다.

눈보라 울부짖는 황일의 전장에서, 준엄한 반미성전의 나날 총대와 인연을 맺으시고 총대의 위력으로 공화국을 승리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 절정에 달하고있던 엄혹한 시기 선군을 조국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제일보급으로 내세우시었다. 제국주의세력이 기고만장하여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며 공화국에 대한 압살의 도수를 높이고있던 그 나날 그이께서는 사생결단의 의지를 안으시고 오성산과 초도, 판문점과 철령 등 조국의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걸어가시었다.

그 어떤 풍랑도 막지 못할것이라고 하시며 자그마한 쾌속정에 몸을 실으시고 길길이 솟구치는 파도에 맞받아 초도로 향하시었고 비줄기 쏟아져 내리는 오성산의 칼바람길에서 야전차를 어깨로 미시며 조국수호의 전초선을 찾으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천지풍파에도 드물지 않는 철석같은 의지를 안으시고 조국의 당당한 존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총횡무진하시며 장군님께서 전선길에서 지는 해, 솟는 해를 맞으신적 얼마이고 그 나날에 찾고찾으신 인민군부대들과 단원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이께서 주제 85(1996)년 3월 20일은 하루 전선동부의 인민군부대들을 찾아달리신 주행거리의 무려 1 000여리를 헤아리며 주제84(1995)년 1월 다박출초소를 찾으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이께서 현지시찰하신 무려 2 490여개에 달한다. 조국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는 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 계곡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는 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 계곡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는 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 계곡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는 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 계곡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는 것이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여서 계곡의 높고낮은 산발들과 계곡의 굽이굽이 주름잡으시며 이어가신 장군님의 전선강행군의 자욱 천 리방선마다에 감동깊게 새겨져있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령도의 전기간 그 어떤 천지풍파가 휩쓸어도 조금도 끄떡하지 않는 필승의 신념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전쟁책동을 맞받아 짓부시며 사회주의를 수호하시었고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 초 《사회주의의 종말》을 떠들던 미국이 그 무슨 《붕괴》설을 내들리며 국제원자력기구를 내세워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특별시찰》을 강요해나섰을 때였다.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화국이 이를 단호히 배격하자 미국은 《제재》나, 《냉면폭격》이니 하면서 힘으로 어찌보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위협천만만 북침전쟁연습의 불구름이 밀려들고있었다.

그때 공화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고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성명이 행성에 울려퍼졌다.

죽시에 150여만명의 청장년들이 조선인민군대대를 탄원하고 전군, 전민이 총대를 추켜들었다. 적대세력은 이에 혼비백산하였다. 당시 조선시상대를 선포 하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금은 1950년대와는 다르다. 만일 이전에 적들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그때에는 마지막 한놈을 소멸할 때까지 단호한 진멸을 가하여 만창창이 되게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공화국에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미국이 핵공격을 순간에 몰기쯤으로 만든 선군의 담력과 배짱의 선언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적들을 위력력파하는 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김정일동지는 배짱도 장군의 배짱,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처럼 위대한 령장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절세의 위인을 모셔 공화국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승리적으로 이겨내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빛나게 수호할수 있었다.

오늘 조국수호전, 민족자주통일위업의 진두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1953년 7.27전승광장에 서계신 김일성대원수님의 모습으로, 조선인민군창건 60돐 경축열병식에서 영광을 주신 김정은대원수님의 그 음성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2012년 4월 15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백두령장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와 영광만을 려사에 아로새겨온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또 한번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력과 배짱으로 앞으로 위대한 승리만을 향해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전승 60돐을 맞으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장을 모셔 새기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찬 년대들을 긍지감을 안고 돌이켜 보고있다.

선군의 기치높이 제국주의의 침략위협을 분쇄하고 승전고를 울려온 그 년대들에는 《푸에블로》호사건때의 통쾌한 승리도 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공화국령해 깊숙이 기어들었다가 영웅한 조선인민군 해병들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를 침범하여 정탐행위를 감행한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의 나포는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주권행사였으며 침략자들에 대한 응당한 징벌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배가 《공해》에 있었다느니, 《해안법》이 있었다느니 하는 일도당도않은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유엔에 제소하는 추태를 부리고 공화국에 응징 위협공갈을 다하였다.

남조선 및 일본주둔 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의 미군에도 조선침략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게 대한 명령이 내려졌으며 일본의 요코쓰카에 기지를 둔 미제7함대 주력기동부대와 《엔터프라이즈》호, 《레인지》호, 《요코라운》호 등 항공모함들과 수 십여척의 함선들이 조선반도 해역으로 집결되었다.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음속에는 신념의 산악이 더 든든하게 자리잡았고 적진을 굽어보시며 멸적의 화살표를 그어주시 때 이 나라의 고지들은 무적의 생세로 자리잡았다.

누가 최후에 웃는가 보자,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당할자이 세상에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배짱을 지니시고 선군의 길을 즐기게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은 정녕 전화의 나날 불비출아지는 최전선으로 결연히 나가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모습그대로이시었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 신묘한 전략과 전법으로 적대세력의 침략기도를 일격에 제압하시는 선군령장의 비범한 령도에 의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이 굳건히 수호되고 공화국의 국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다.

하기에 세계의 언론들도 《미국이 (세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오만하게 나오지만 사회주의조선의 경우에는 (유일초대국)의 지위가 통하지 않는다. 선군정치와 혼

을 완비한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신 아버지장군님이시다. 그이께서 최전연의 전방지휘소에 서시어 최고사령부의 작전도를 펼칠때 군대와 인민의 마

한 조국수호의 총대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를 강성국가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대고조격전장마다에서 불과기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으며 그들속에서 창조된 최첨속도, 단숨에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하시었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는 거창한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최첨단돌격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날수 있었던것도, 도처에 회한한 사회주의선군이 펼쳐지고 새로운 평양속도, 평양번영기가 펼쳐질수 있었던것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선군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이런 신문 《이란 뉴스》는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빛나는 조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조선을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울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나라의 위력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사회주의의 운명을 위협하는 제국주의 령강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에서 련이어 승리하여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경제를 부흥시키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그이의 사상과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의 보검으로 다져주신 불패의 국력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만년토대가 있고 공화국의 전도는 끝없이 휘황찬란한것이다.

오늘 또 한반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수호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인 강성국가건설업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령장의 담력과 배짱

자주권을 생명으로 여기는 공화국이 이를 단호히 배격하자 미국은 《제재》나, 《냉면폭격》이니 하면서 힘으로 어찌보려고 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위협천만만 북침전쟁연습의 불구름이 밀려들고있었다.

그때 공화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 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가 하달되고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담은 성명이 행성에 울려퍼졌다.

죽시에 150여만명의 청장년들이 조선인민군대대를 탄원하고 전군, 전민이 총대를 추켜들었다. 적대세력은 이에 혼비백산하였다. 당시 조선시상대를 선포 하시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지금은 1950년대와는 다르다. 만일 이전에 적들이 우리에게 달려든다면 그때에는 마지막 한놈을 소멸할 때까지 단호한 진멸을 가하여 만창창이 되게 할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미국을 위시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이 공화국에 정치군사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미국이 핵공격을 순간에 몰기쯤으로 만든 선군의 담력과 배짱의 선언이었다. 하기에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적들을 위력력파하는 최고사령관의 담력과 배짱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김정일동지는 배짱도 장군의 배짱, 담력도 장군의 담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초도

주제85(1996)년 초겨울 어느날이었다. 그날 한 군함이 위치하고 있는 서해의 날씨는 몹시 을씨년스러웠다. 진눈깨비가

흘날리고 파도의 갈기는 모 든것을 집어삼킬듯 세쳤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광란하는 바다날씨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집제같은 파도를 헤가리며 쾌속으로 질주하는 배를 타시었다. 이윽고 섬에 당도한 쾌속정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사람들이 말하는것보다 서해의 인상이 좋다고 호방하게 웃으시면서 초소의 감시소를 찾으셨다. 그곳의 지형지물과 부대의 배치상태, 작

있을 때에 최전연의 최전방을 찾으셨던것이다. 장병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시고 조국의 관문초소를 튼튼히 지키고있는 영웅들을 만나니 반갑다고 하시며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친필을 새긴 비와 정전협정조인장 등을 돌아보시고 군인들의 훈련도 보셨다. 그의 관문점시찰은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주시하고있던 세계에 큰 충격파를 일으켰다.

김정일최고사령관이 동서부와 전후방의 인민군부대들을 다 돌아보고 관문점까지 찾은것을 보면 조선은 싸움준비가 완료된 모양이라는 말들이 미군내에서 바람처럼 파다하게 퍼졌고 남조선내에서는 북침도발에 광분하는 호전세력에 대한 비난이 비발했다.

본사기자 리 설



위대한 장군님 병사들을 찾아가신 파도세찬 초도의 바다길

최 후 승 리 를 향 해 나 아 가 는 조 선

무 궁 창 창 할 민 족 의 래 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지난해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연설에서 공화국이 가는 앞길에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백년대계의 전략을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종 승리를 향해가는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국을 타승하고 위대한 전승기념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준엄한 정세속에서 조국수호의 총대를 높이 드시고 선군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나 군대와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힘과 고무도 주시고 승리의 방략도 안겨 주십니다.

판문점과 오성산의 까칠 봉초소, 장제도와 무도영 웅방어대, 월내도를 비롯한 위험천만한 최전연소들과 지휘소들에서 적진을 굽어

보시며 그이께서는 말씀하시였다.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면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것이 저버리라고,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그이의 모습에는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조선사람의 본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단호히 말씀하시며 1950년대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당대한 령장의 기상이 비껴있었고 나에게는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고 하시며 조국수호의 전진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당력과 배짱이 그대로 어리여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지니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거창한 투쟁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마식령수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여 온 나라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창조의 불길줄을 새겨주신 원수님께서는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 사업을 계속 현지에서 지도하고계신다. 얼마전에는 새로 건설하고있는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에서 우리 인민들과 아이들에게 선물로 안겨주게 될 아동병원과 구강병원을 당 창건기념일까지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인의 출중한 품도를 지니시고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끌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은 비오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한결같이 매혹과 흠모의 격정을 터뜨리고 위인이 계시는 더욱 무궁창창할 민족의 래일을 확신하고있다.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은 조국과 민족의 승리와 힘의 상징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위업을 이어 민족의 존

엄을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출중한 정치실력과 품모에 대해 남조선 각계층의 인민들도 《우리 민족은 또 한번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김정원수님을 모시어 대를 이어 수령부, 장관부를 누리고 있다.》, 《김정은 령도자께서는 백두산위인들께서 마련해놓으신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적대세력의 도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신다. 령도자와 인민이 굳게 결합되어있는 북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하여 나아갈것이다.》라고 신뢰심을 터뜨렸다.

탁월한 령장, 위대한 수령을 모신 나라와 민족은 승승장구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똑같은 모습 또 한번의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민족의 오늘을 물론 래일은 더욱 무궁창창하며 삼천리강토에는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나라가 머지않아 우뚝 솟아오르게 될것이다.

한명국

전승 60돐을 맞는 온 나라의 지금 경축의 환희에 잠겨있다. 하루일을 끝내고 퇴근길에 오른 나의 마음도 이를할수 없는 흥분속에 잠겨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유정한 보통강의 유보도를 따라 걸느라니 문득 시야에 전승기념위를 더욱 고조시키며 훌륭히 일떠선 전승기념관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온다. 아름다운 평양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노을비근 보통강반에 웅장하게 일떠선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무엇이랴 형언할수 없게 숭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전승기념관을 훌륭한 기념관으로 꾸리시기 위해 몸소 러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어 구체적인 건설방향과 방도까지 가르쳐주셨다고 한다. 얼마전에는 완공을 앞둔 기념관을 두차례나 돌아보시며 당에서 전승기념관을 새로 건설할 결심을 정말 잘했다는 뜻깊은 말씀도 하시였다고 한다.

수필

영원한 승리의 집

림길이다. 침략자들은 더 많은 물질적부와 자본을 약탈하기 위해서, 진보적인인들은 사랑하는 조국과 아름다운 삶과 행복을 지켜서 전장을 이기면 승자이고 지면 패자이다. 결코 정의의 위해 일떠선 인민이라 하여 전장에서 패한다면 그 아름다운 희망과 미래, 삶과 행복, 정의와 진리를 고스란히 침략자들의 군화발에 내맡겨야 한다.

미국의 무력침공을 반대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력량상대비에서 불균형을 이룬 보기 드문 전쟁이었다. 강건된 지 불과 2년밖에 안되는 그 야말로 청소한 공화국과 건국 이래 110여차례의 침략전

쟁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다는 세계 《최강》이라 자처하는 미국과의 전쟁이었다.

세계의 그 누구도 공화국이 승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미국이 패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공화국은 전승을 이룩하였고 자기의 존엄과 미래, 삶과 행복을 지켜냈다. 보다 찬란하고 광휘로운 래일을 되찾았다. 허나 미국은 이때부터 내리막길의 시초를 땀고 《강대성》의 신화는 깨어졌다.

이것은 철두철미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해 창조된 것이었다.

위대한 령장을 모실 때 나라와 민족이 강해진다는 것은 력사의 거스름수 없는 진리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모시어 장장 60여년에 걸치는 반미대결전은 영원한 조국의 승리로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아직까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수차례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어

떻게 해서라도 공화국을 허물어보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러나 대를 이어 받아안은 령장부를 누리는 공화국에서는 미국의 힘과 강권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1990년대 사회주의나라들의 련이온 붕괴로 이 땅에 가장 엄혹한 고난의 시기가 도래했을 때에도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위대한 김정원수님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조국을 지켜냈고 반미대결전에서 변천승만을 이룩하였다. 그 업적과 전통, 력사와 정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로 저기 바로 보이는 전승기념관에 있는 것이다.

조선의 승리를 안고 우뚝 선 집. 이는 미국과의 세기를 이어오는 대결전을 총괄산하고 이 땅위에 최후의 승리를 기어이 안아오시려는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굳은 결심과 승리에 대한 확신감이 일떠세운 력사의 창조물이며 승리의 기념비이다. 어제와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조선의 승리를 안고있는 집이다.

그렇다. 저 집에는 바로 승리가 있다!

리현호

나라와 민족마다 자기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이나 건설방식이 있다.

우리 민족이 오늘처럼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오르고 과학기술강국에도 도약하는 경이적인 현실의 비결은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만을 꿰뚫어 이어온데 있다.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부강번영의 근원이다.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야 창조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주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원수님의 정치활동의 신조였고 근본원칙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은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에 따라 하는것만큼 누가 뭐라고 하는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항일대전의 나날이나 새 조국건설의 나날 그리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로정에서 시종일관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신 수령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기성리론이나 기존방식에 구애됨이 없이 모든것을 자주적방정에서 대하시며 우리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창조적으로 해결하셨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라, 우리 식대로 투쟁하라, 우리 식대로 창조하라는 주체의 기치들이 자주적원칙과 자주적립장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도록 하신 장군님이시다.

민족자주와 변명의 길

에 없는것이 오늘의 세계에서 보는 현실이다. 강력한 군력에 당당한 자주정치가 있고 발전과 부흥이 있다.

선군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원수님께서 한평생 높이 드신 애국의 제일보검이다. 애국의 길에 선 총대의 귀중함을 절감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선군으로 애국위업을 개척하시고 총대로 군력을 다져 미일 두 제국주의강적을 타승하시고 8.15해방과 7.27전승을 안아오셨다. 그이의 선군사상, 선군위업을 빛나게 이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 더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나라의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셨다. 선군은 민족의 생명이고 자주이고 존엄이다, 선군을 하여야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나갈수

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력사의 온갖 도전을 맞받아나가면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며 선군천만리를 걸고걸으신 그이의 로고와 업적은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독창적인 총대중시, 선군사상을 내놓으시고 비범한 선군령도로 공화국을 세계적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업적은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고있다.

사회주의는 인민의 리상이고 생활이다. 사회주의의 길에서 인간의 존

엄과 권리가 향유되고 사람들의 리상과 행복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고 버리면 죽음이 라는것이 이 나라 인민이 력사와 실생활을 통해 절감하고있는 진리이다.

인민위원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원수님께서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애국애민현전의 길을 걸고 또 걸으셨다. 나라형편이 아무리 어려운 때에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도록 하시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인민적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주의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정치실력과 숭고한 사랑은 세월이 흐를수록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인류력사에 정의로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길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중시하고 구현하는 사회주의의 길을 택하시고 빛나게 개척하신 수령님이시였다. 사회주의수호전을 이끄시는 그 나날 달리는 야전차의 차창에 비껴드는 협동전야를 바라보시며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고, 사회주의가 아니면 어대 가서 이런 회한한 풍경을 볼수 있겠는가고, 사회주의는 저렇게 인민의 마음속에 역세게 뿌리박고있으며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의 락원을 펼치고있다고 하신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생을 다 바치시어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 의해 우리 조국은 명실공히 자주, 선군, 선군의 나라, 사회주의나라로 존엄 떨치고있는것이다.

절세위인들의 한생이 어려웠던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며 확고부동한 결심이다.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는것을 애국위업실현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신 그이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선견지명의 령도 품모에서 사람들은 부강번영하는 민족의 앞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성중삼

발로 해로와리는 고국의 현실

여러차례 고국을 왕래한바이나 이번 방문은 참으로 인상적이다. 한두해 사이에 조국은 몰라보게 변모했다. 특히 평양의 달라진 모습이 확연히 알린다. 튼튼하게 앉은 새 주택지구와 극장, 상업부사당을 비롯한 건축물 하나하나를 봐도 나날이 새로와지는 고국의 현실을 대뜸 알수가 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관심과 지도속에 건설됐다는것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인민성과 뛰어난 령도실력에 대해 대변에 가능할수 있게 됐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나가도록 령도하시는 원수님의 통이 큰 설계와 실천력에 감동을 금할수 없다.

지난 25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준공식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뵈오면서 다시 위대한 영결이시라는것을 때부로 느끼게 됐다. 그분의 가르치심에 의해 조국보위성전에서 영웅하게 싸운 인민군렬사들을 위한 묘가 새로 건설되게 됐다. 몇달이만에 완공하도록 한 그분의 지도력에 도 놀라왔고 전쟁로병들과 련사들, 선배들을 존중하는 그분의 도덕리에서도 나는 많은것을 느꼈다.

출중한 령도자를 모신 민족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에서 나는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젊음을 되찾는 마음이다.

약동하는 고국의 현실을 참작뜨까의 동료사회에도 전하고 동료들모두가 애국애족의 넋을 번치 않고 서로의 단합과 화목을 도모하며 아울러 민족의 통일과 자손만대의 번영에 미력이나마치고싶은것이 나의 소감이다.

신현은

(김차뜨까조선민족문화센터 사회문화지역단체 《조국》 회장)



천출명장의 웃음에서 최후승리를 봅니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본 조선전쟁의 승패는 미국이 전쟁을 도발한 바로 그날에 결정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할아버지(홍명회)는 바로 그 역사적인 화폭을 직접 목격하신 증견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아침에 내각 부수상을 하던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하여 긴급소집된 내각비상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아 긴장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시작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하에서 해방된지 불과 5년, 공화국이 창건된지 2년, 인민군이 긴급소집된 내각비상회의도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말그대로 우리 조국은 갖 태어난 신생조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먹겠다고 달려드는 상자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며 110여차례의 전쟁에서 단 한번도 패하지 않았다는 미국이었습니다.

기록영화에도 나오지만 미국비행기들이 갈가마귀처럼 하늘을 가득 메우며 달려들어 폭탄들을 떨어뜨리는 땅 위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하기에 회의에 참가한 모두가 전쟁의 운명을 두고, 우리 조국의 운명을 두고 깊은 고뇌와 우려에 잠겨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비단 우리 인민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우려하며 깊은 불안과 동경에 찬 눈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이 전쟁에서 조선이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얼마 안되었을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조선과 미국의 수적, 기술적 차이로 보면 결말이 너무도 뻔한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좌중의 걱정과 불안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울려왔습니다. 그 웃음과 함께 들려온 것은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는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었습니다.

자고로 명장의 인격은 전쟁판에서 알 아본다고 하였지만 침략자들이 38° 선을 넘어 달려드는 엄혹한 시기에 누가 과연 배부유한 웃음을 터뜨릴 수 있었습니까?

그처럼 위급하고 엄혹한 시기에 긴장의 눈빛이 아니라 호탕한 웃음을 짓는 것은 전쟁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는 억센 담력과 배짱이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훌륭한 인력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 무수한 전쟁들에서 배짱과 담력으로 이름을 날리고 역경을 웃음으로 맞받아나간 군사령관들과 명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오지만 우리 수령님의 그 담대한 배짱에는 도저히 비길 수가 없습니다.

천만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며 호탕

하게 웃으시는 수령님의 담력과 배짱, 승리의 확신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을 자신의 온몸으로 체현하고있는 절세의 위인, 강철의 명장만이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던 그날의 우리 수령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는 말씀은 오늘도 저의 흥벽을 세차게 두들겨줍니다.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승냥이는 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과 같이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덤비는 놈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는 천하제일명장을 모셔 우리는 벌써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신심이 절로 북받쳐올랐다고 합니다.

그날 수령님의 역사적인 연설 《결정적인 반공격으로 무력침범자들을 소탕하자》를 피끓는 심장으로부터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조국해방전쟁에 산악같이 일떠섰으며 전쟁 첫 시작부터 침략자들에게 뒤통을 안기었습니다.

행복한 때에는 누구나 웃을 수 있지만 준엄한 때에는 아무나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20여일에 걸친 가련한 전화의 나날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 제일 어렵고 힘겨운 때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의 나날이었습니다.

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방대한 특혜 공군무력과 저들의 추종국가병력들까지 동원하여 북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우리 내부에 있던 일부 나쁜놈들과 비겁분자들의 입에서는 내각이 지체없이 압록강을 건너가야 한다는 잡소리도 울려나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자기의 불안한 심정을 수령님께 터놓고 싶어 최고사령부를 찾아갔을 때였습니다.

《장군님, 저의 말이 외람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일부 사람들 속에서 내각이 압록강을 건너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할아버지는 자신의 무릅없는 물음에 수령님께서 어떻게 대답해주시길 하고 마음을 조이었는데 뜻밖에도 그이께서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시며 호탕하게 웃으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화도 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심과 락관이 넘쳐있는 위인만이 고난과 시련속에서 웃을 수 있고 그 웃음은 사람들에게 든든한 배심과 희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날 더욱 놀란 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호탕한 웃음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뜨겁게 숨배여어는가를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이날 수령님께서서는 할아버지에게 압록강을 건너갈 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들이 전선과 적 후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겠다는 것과 하며 우리가 인민을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고 절절히 말씀하시었습니다.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자신을 바치는 위인은 인민과 생사를 함께 하며 그들의 운명을 끝

홍 석 화

까지 보살피고 지켜줍니다. 해방전에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줄 백두산장수별로 충성하며 수령님을 마음속으로 따라왔으며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는 새 조선이 나아가길 앞길을 밝혀주고 사상과 정경, 신앙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한 품에 안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수령님의 인민적정치, 애국애주의 정치에 매혹되어 그이 품에 자기와 가족들의 운명을 다 맡긴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있을 수 없는 날에 수령님께서서는 우리는 더이상 몰려설 자리가 없으며 이 땅에 기여든 침략자들을 짓부시고 최후승리를 이룩해야 할 것임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정병 인민의 사상정신적힘을 전쟁승리의 기본요인으로 보시는 수령님께서서 그처럼 엄혹한 나날에도 적들을 전멸케 하는 승리의 선언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기에 속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수령님을 만나보온 흥분된 심정을 즉흥시에 담아 읊었습니다.

마사름기 불뼉과 같은 말씀이랑 또 웃음이랑 내 속 가득 쌓였던 근심 눈이 슬듯 사라졌노라

삼간도벽 조그만 방에 그이 지금 앉게시나 만길높은 영웅의 기상 내 눈앞에 펼쳐올라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리한 레일을 확신하시었기에 총포탄이 우박처럼 쏟아지는 속에서도 학생들의 글썽는 소리가 랑랑히 울려 퍼지고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었으며 고지에서는 화선음악회가 열리고 전후복구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가 작성되는 꿈만 같은 사실들이 펼쳐질 수 있었습니다.

가련치절한 전화의 나날 환하신 수령님의 그 미소에서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가 다듬고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은 침략자들과의 판가리싸움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마침내 전승의 기적을 안아올 수 있었습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우리 조국의 력사는 불세출의 백두산 절세위인들을 따라 힘차게 흘러왔습니다.

미제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적수리운 참패에서 웅당한 교

훈을 찾을 대신 새 전쟁도발할 기도하면서 1968년에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을 일으켰을 때였습니다.

당시 미제는 우회적인 압력으로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자 《푸에블로》 호를 지정된 시간내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 함선을 도로 찾겠다.》는 오만무례한 최후통첩까지 보내며 우리 공화국을 로팔적으로 위협해나섰습니다. 침략의 대무력이 조선통해에 밀려들고 전쟁이 당장 오늘날에 터질 수도 있는 숨막히는 긴장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한 일군은 밤새워 작성한 《푸에블로》 호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의 집무실로 달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서던 그는 그만 못박힌듯 그자리에 굳어지고말았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들의 웃도안을 들여다보고계셨던 것입니다.

일군이 놀라운 표정을 짓고 서있는데 그이께서는 한장 또 한장 웃도안을 번지시며 연방 《졸구만, 졸아!》 하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더니 누구에게나 전화로 우리 녀성들이 입을 웃인데 꼭 도안대로 만들어 선녀가 되게 해야 한다고 재삼 당부하시었다는 것입니다.

잠시후 그 일군에게 《푸에블로》 호사건과 관련한 대응책을 놓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미국이 조선을 특별로 알아야 하겠다고, 조선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고, 세상사람들은 우리가 미국놈들보다 더 항복서를 어떻게 받아 내는가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에 넘치신 어조로 말씀하시었습니다.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사업을 하고있던 저희 할아버지는 해당 일군으로부터 그 이야기가



최후 승리를 이룩해 나갈 결의에 충만되어 있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기자: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조국에 온 여러분을 만나 반갑다. 전화의 나날 조국해방전쟁에 참가하여 용감하게 싸운 전쟁로병들로서 이번엔 조국에 와서 진승 6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은 남다르리라 보고 본다.

김동휘: 정말 그렇다. 피로써 지켜낸 조국땅을 다시 밟고보니 감회가 새롭고 이 심정을 무엇이라 말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김유자: 나도 같은 심정이다. 몹은 비록 늙었어도 15살 어린 나이에 용양 조국해방전쟁에 탄원했던 그 때가와 열정이 다시금 살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기자: 해외에서 살면서 어떻게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하게 되었고 어떻게 싸웠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

김동휘: 나의 부모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인 1930년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지 않으면 안되었다. 하여 우리 가족은 중국 심양에서 살게 되었다.

나는 심양에서 미국놈들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 16살이었던 나는 꼭 전선에 나가리라 결심했었다. 나의 부모들이 이국땅에서 타향살이

해외동포좌담회

우리는 이렇게 싸워 이겼다

참가자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 김동휘(79살)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 김유자(78살)



재중동포전쟁로병대표단 황영두(79살)

를 할수밖에 없었던것은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었던가, 우리 조국을 먹어보려고 이번에는 대양 건너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조선인민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강 건너 불보듯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1950년 10월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전쟁에 파견될 때 나는 선함으로 총을 잡고 전선에 나왔던 것이다.

당시 중국인민지원군 제 39군 116사단에 소속되었던 나는 수많은 전투들에 참가하여 용감히 싸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였다. 립진강계선들과전투, 경기도 의정부 부근에서의 전투를 비롯하여 내가 참가했던 전투장면들이 아직 눈앞에 생생하다. 하기는 전쟁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1950년 11월 평안북도 운산에서 있었던 전투가 생각난다. 그때 내가 속한 부대는 미제침략군기병 제1사단과 접전을 하게 되었다. 생사를 판가리한 이 전투에서 우리는 수많은 적을 소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다. 생사를 같이한 전투들이 다 희생되고 불과 몇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였다. 적기들의 폭

탄소리와 기총소리가 하루도 멈추지 않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오직 승리를 위해 희생적으로 싸웠다.

황영두: 중국 길림성 연길현에서 살던 나도 중국인민지원군의 한사람으로 1950년 10월 조선전쟁에 참전하였다. 당시 16살이었던 나는 중국인민지원군 24군에 속해 싸웠는데 여러 전투들 가운데서도 제일 치열하였던 개성부근에서 있는 무명고지전투에 대하여 꼭 이야기하고 싶다.

그때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군은 우리가 지키고있는 고지로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몇백명이나 되는 적들이 총포사격을 해대며 하루에도 몇차례씩 파도식공격을 해왔

지만 우리는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결사전을 벌여 놈들의 공격을 끝끝내 물리쳤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적들의 포사격에 산이 절반나마 날아갔다. 그때 함께 싸운 전투들이 이제는 몇명 남지 않았지만 지금도 자주 무명고지전투때를 회상하곤 한다.

김유자: 나는 1951년에 조선전쟁에 참전했다. 당시 중국 연변에서 살면서 간호원학교 학생으로 공부하고있었던 나는 조선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에 접하고 중국인민지원군에 탄원하여 간호원으로 복무하였다. 단둥을 거쳐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미국놈들의 폭격으로 폐

허가 된 조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 미국놈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우리 부대가 주둔하고있은 곳은 평양시 강동구의 남부에 있는 삼동리였다. 그후 개성과 원산에도 있으면서 여러 전투에 참가하였다. 불철주야의 훈련은 결전의 절정마당이었지만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다. 우리의 조국땅을 침범하고 우리 겨레를 무참히 학살한 미국놈들을 천백배로 복수하리라 맹세를 안고 비록 간호원이지만 직접 전투에 참가하여 놈들에게 명중탄을 안기곤 하였다. 전쟁의 나날 싸운 공로로 나는 3등공훈호를 받았다.

기자: 여러분과 같은 뜨거운 조국애, 민족애를 지닌 훌륭한 로병들이 있어 3년간의 가련치절한 조국해방전쟁은 조선의 승리를 낳을 수 있었다.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떠들던 미제를 라승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황영두: 그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시기 나는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이 낳은 탁월한 령도자이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 그의 탁월한 전략전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국인민들의 위대한 힘은 미국놈들의 코대를 쪼어 놓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전파의 불길속에서도 전선에서 싸우는 인민군용사들을 대적으로 불러주시고 인체들을 류학보내시는 그이의 정책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겼구나 하는 확신이 절로 들었다.

승리는 60년전에만 이룩된 것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시고 김일성장군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령도는 우리 조국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게 계십니다.

우리 인민들이 날에 날마다 뵈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은 쉬임없이 병사들과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이고 그들속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처럼 언제나 환히 웃고계시는 모습입니다.

27P의 작은 목선에 앉으시면 출렁이는 바다위에 웃음을 날리시며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아대를 찾아가시고 적초소가 불과 350m앞에 있는 가칠봉초소에까지 나가시어 병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환하신 모습을 뵈으며 저는 최후승리는 원수님의 것, 조선의 것이라는 걱정을 리쳤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압살에 피를 물고 날뛰고있지만 우리 조국땅에서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선언하며 전승기념관이 더욱 웅장하게 일떠섰고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는 인민의 행복한 레일을 현실로 펼쳐진 건설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있습니다.

철령아래 사파바다가 펼쳐지고 오성산이 바라보이는 최전선의 세로동판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규모축산기지 건설이 일어나고있으며 마식령지구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는 이 장쾌한 현실 자체가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선군조선이 터뜨리는 호탕한 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태양의 영상은 우리 조국의 백승의 기치이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 햇빛같은 미소를 우리처럼 신심도 높고, 용기백배하여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입니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이 땅, 이 하늘가에 최후승리의 장쾌한 축포가 터질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웃으며 미래를 갑니다. 최후승리의 장엄한 퇴성이 들려옵니다.

김유자: 김일성장군님께서

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중국을 적극 도와주셨다. 특히 중국동북지역을 해방하는데 사심없는 방조를 아끼지 않으셨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동포들은 물론 중국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축지법하신 승리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가게 된다. 나는 전쟁로병으로서, 조국통일상수상으로서,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로병지구협회 회장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잘 받들어나갈 마음뿐이다.

김동휘: 나도 같은 생각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가르치심따라 미국강도놈들을 쳐부시고 전쟁승리를 이룩할 수 있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장군님과 똑같은 비범한 인품과 명도력으로 우리 조국을 령도해나가신다.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경축행사에 전생로병대표로 참가한 나는 분에 넘치게도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받아안았는데 그때 그이의 자애로운 존안을 뵈으면서 나는 16살 조선전쟁때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과를 받아안던 일이 떠올라 눈물을 적시었다.

김유자: 김일성장군님께서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여러분이 조국방문의 나날을 즐겁게 보내기를 바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 개막

제2해방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에 승리의 환희와 격정이 차넘치는 속에 평양에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 경축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회가 개막되었다.

뜻깊은 전승절에 즈음하여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건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선군혁명업적을 불멸의 꽃과 더불어 길이 빛내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 그리고 진보적인류의 고결한 총정의 정화이다.

태양의 꽃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특색있게 장식된 전시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영상이 모셔져 있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을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시였으며 반제반미 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고 강성국가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전시회장에 차넘치고있었다.

전시회장에는 무려 기관,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많은 단위에서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부들과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이 위인칭송의 꽃들을 전시회장에 내놓았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절절히 그리며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총정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어난 2만여상의 불멸의 꽃들로

전시회장은 황홀경을 이루고 있다.

개막식이 24일 김일성화 김정일화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개막식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시작되었다.

김창도 조선 김일성화 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 경축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회를 개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선군조선의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마련 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끝없는 흠모심

에 떠받들려 진행되는 위인칭송의 대화원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멸의 꽃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는 선군조선의 국보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설자는 전시회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투쟁을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전시회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은 《김정일장군의 노래》 주악으로 끝났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불멸의 꽃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 경축 군악시위행진이 22일에 진행되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을 우러러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장중하게 주악한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를 대오앞에

군악시위행진 진행

휘날리며 천리마동상앞으로 따라 승리의 진군가 높이 군악시위행진을 개시하였다.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는 물동적이며서 박력있는 지휘에 따라 《7.27행진곡》을 주악하면서 천리마동상을 지나 부두당당히 나아갔다.

선군의 총대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세기적적극을 창조해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멸성을 과시하며 군악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행진대오를 수도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영웅하게 싸운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백철불굴의 정신이 《조국보위의 노래》,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다》 등의 씩씩한 전사가요들에 맥박쳤다.

지난 세기 50년대의 수령결사옹위전, 조국수호전에서 용맹을 떨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목숨으로 보위해가는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을 노래한 《조선인민군가》, 《포위섬멸의 노래》, 《우리의 최고사령관》 등의 주악이 7월의 하늘가에 메아

리쳤다.

군악시위행진을 보면서 전 쟁로병들은 승리의 축포가 터져오르는 전승의 광장에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울리던 잊지 못할 그날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이어 준엄한 년대들에 혁명군악으로 선군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떨치는데 기여한 군악대가 개선문으로 들어서자 각계층 근로자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하였다.

백두산 줄기줄기, 압록강 굽이굽이에 피어던 자욱을 새기며서 간고한 투쟁을 벌리시어 빼앗긴 조국을 찾아주시고 백승의 전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개선문 상공에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군악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다.

불수룩 위풍당당한 군악시위행진대오가 《장군님은 승리의 기치》, 《우리는 총참모를 더욱 굳게 잡으리》, 《최고사령관님 날리며 승리를 떨치리》 등을 힘차게 주악하며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도도히 나아갔다.

혁명의 총대를 역세계 틀어쥐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갈 인민군장병들

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박력있는 리듬에 담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군악이 거리를 따라 진행하였다.

《조선의 힘》,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를 비롯한 노래주악이 울리는 거리들에 일심단결의 위력,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국력을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해갈 천만군민의 기상이 나타졌다.

백두산혁명강군의 위력을 뽐내며 군가소리 높이 나아가는 군악시위행진대오를 향해 살림집 배란다와 창가에서 가정주부들과 어린이들이 손을 저어주었다.

종합군악대는 주체조선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결사옹위해갈 천만군민의 불타는 맹세를 담아 《발걸음》,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하자》 등의 노래를 힘차게 주악하며 4.25문화회관으로 향하였다.

4.25문화회관 광장에 울려 퍼지는 전사가요들과 《우리의 7.27》,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를 비롯한 혁명군악의 장중한 선물에는 회세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태양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영원히 빛내여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총정이 뜨겁게 넘쳐흘렀다.

본사기자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개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2일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다.

박봉주 내각총리, 김기남, 최태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김용진 내각부총리, 리영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조선로동당,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인민군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순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김용진 내각부총리가 개막

연설을 하였다.

그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공연을 진행하게 된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진승 6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또다시 막을 올리게 되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전승업적, 선군혁명업적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의 7.27》의 경쾌한 노래선율이 울려 퍼지자 경기장바다과 배경대에 《7.27》, 《60》 등의 갈발들이 새겨지고 조국해방전쟁시기 용감히 싸운 영웅 전사들의 모습을 형상한 화면들, 다채로운 빛물동효과와 조명, 불꽃축포 등으로 황홀경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항일의 혈전 만리를 헤치시고 조국해방

의 력사적업적을 이룩하시였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부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전설적영웅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으며 위대한 년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렸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송고한 인민사랑속에 창전거리와 인민극장을 비롯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작품들이 훌륭히 일떠선 현실을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강성번영할 태양조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

주었다.

민족적정서가 깊고 높은 예술적기교로 일관된 음악과 무용, 제도와 교예, 천변만화하는 배경대와 특색있는 무대장치물들, 전광장치, 조명 등 내용과 형식이 있어서 완벽한 조화를 이룬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조선반도평화를 보장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자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 진행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려연)의 주최로 20일 로씨야 모스크바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해외동포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지역의 동포조직대표들과 동포들, 로씨야의 로조친선협회 관계자들, 대조선전문가들 등이 참가하였다.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별전선대사와 대사관 성원들,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 대표단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대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6.25전쟁을 도발한 미제의 침략적정체를 폭로하는 우리 나라 영화 《조선전쟁의 장본인》을 감상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일성 국제고통련 제1부위원장 겸 로씨야고통련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연설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미국이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면서 북침전쟁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와 안정,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남조선의 집권세력과 정치, 경제 등 사회전반 분야에 압력을 가하고있으며 때때로 조선에 대한 핵공격을 가한 합동군사연습을 벌일으로써 가혹이나 긴장한 조선반도의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대한 우려로써 모든 해외동포들이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라도 앞장설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선언문은 전체 조선민족이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의 정신에 기초하여 자체의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대회가 끝난 다음 로씨야고통련에서 준비한 예술공연과 축하연회가 있었다.

본사기자



서사시 전승의력사는영원하리라

리송일

이 나라 강산에 온 나라 인민의 가슴가슴에 전승의 활화물결치는 이 아침 김일성광장에 나는 쏘노라

여기는 60년전 내가 썼던 열병광장 원수복 입으신 수령님 우러러 우리 전승의 세대 목청껏 만세를 부르던 곳

아, 전승의 추억으로 뜨겁고 어제와 오늘의 승리가 영광과 긍지로 빛나는 광장이여 여기서 내 뜻을 들어 우리의 전승 60돐을 노래하노라

× ×
불러 그 이름 가슴בח인 김일성광장은 승리의 광장인가 전승의 그날부터 60년세월 승리의 대오 노도치는 광장이여

처억-처억- 지축을 울리며 오늘도 이 광장을 누벼가는 보무당당한 저 열병대오 전승의 단상에 수령님 높이 모셨던 영광의 그날에서 영광의 오늘에 이른 그 전승의 대오인듯

그 대오에 로병의 이 몸 세워 흘러간 역사를 더듬어보느라니 가슴뜨겁게 안겨오는 모습 미제를 서산락일의 운명에 처넣으신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가슴뜨거워라 수령님 모시여 수령님 계시여 강적을 쳐부신 조국해방전쟁 오직 그이만을 믿고 오직 수령님을 조국으로 받들어 전쟁의 불비를 헤쳐 안아온 위대한 전승의 력사여

그날엔 누구도 장담 못했더 우리의 승리를 2년도 못된 청소환 우리 공화국 백수십년 침략사를 가진 미제와 전쟁에서 싸워 이기리라

오늘도 이 가슴 울리노라 세계람심들의 우려와 동정어 동방의 우리 조선으로 풀리고있던 1950년 6월 25일 내각비상회의장으로 들어서시던 수령님의 호랑하심 웃음소리 그 음성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소!

아,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리 결전의 그 시각 강철의 심장을 지니신 백두의 령장 그이께서 믿으신것은 무엇이었던가 그 웃음에 담긴 필승의 신념 담대한 기상은 그 무엇이었던가

그이께서 믿으신것은 바로 인민! 해방후 5년간 운명의 보람을 잡고 주어진 새 삶의 터전을 가꾸며 수령님뒤리에 억척같이 뭉쳐 그이 안겨주신 선군의 총대 잡고 자주와 신념을 새긴 인민

수령의 은정을 알고 조국의 귀중함을 알고 제힘에 눈 뜬 인민!

그 인민의 심장에 불을 지피 제국주의아성을 통째로 불사르리라! 원자탄이나 대포가 아니라 평범한 인민대중이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는 력사의 새시대를 창조하리라!

승전은 물론 생사조차 기약할수 없었던

전쟁의 그 첫날 그 첫날에 벌써 우리 병사들 총대 마다엔 필승의 신념이 재워졌더라 -김일성장군님 계시여 우리는 이긴다!

수많은 시련과 난관 준엄한 싸움의 준령들을 피로써 헤쳐야 했던 3년세월 그 세월을 넘어 전승의 광장으로 우리 승리자로 올수 있는 힘이 있었 다면

그 힘은 인민을 믿고 주체전법을 펼치신 수령님의 빛나는 지략- 일제의 백만대군을 위락력락하시며 이 땅에 해방을 안아오신 백두령장 하늘을 찌를 그이의 기상과 담력 이었다

그 기상과 담력으로 가장 위험한 최전방고지우에 최고사령부작전대를 펼치시었고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그 전화속을 수령님 헤쳐셨나니

말해다오 어드메나 폭격에 끊어진 다리 사품쳐 설레이는 강물... 밤하늘엔 부나비같은 적기들 댘뎌 전선의 동무들이 기다린다 하시며 하나, 둘... 위태로운 침목을 누비며 야전차가 건너가던 그 철교는

정녕, 그 어드메이나 앞에는 최전선이라고 한결음도 더는 나가실수 없다고 절절히 에라게 아뢰이는 처녀보초병 한가슴 재가 되어 숨막히는데 그의 등 다정히 두드려주시고 1211고지로 떠나시던 그곳은

이렇게 수령님 한몸으로 포연탄우 헤치시며 열여주신 길 그 길들이 바로 이 광장에 잇닿았어라 전승의 길에 이어졌어라 그 길이 없었다면 우리 6.25에서 7.27로 올수 없었으리 전쟁의 중하 한몸에 떠메시고 수령님 앞장에서 헤쳐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이 땅에 올수 있었으리 승리의 7.27, 그 영광의 날이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이여 쉽게는 말하지 마시라 승리의 7.27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한점한점의 전시품들 무심히 보지 마시라

전쟁이 어떤것인지 이 땅에 7.27이 어떻게 왔는지 다 말해주는 증견자 그 력사의 전시품들중엔 수령님 사용하신 작전지도 있나니

우리 수령님 금방 그으신듯 생생한 붉은 화살표들 그것이 즉시적인 반공격으로 적의 예봉을 무찔러버리고 우리 단숨에 서울로 대전으로... 락동강까지 달려가던 그 길이라

그 붉은 화살표 가리킨 곳에서 눈송이처럼 녹아버린 스미스투공대 재가루처럼 흩날려버린 먼의 24사단 ...

패배의 고배를 들이키며 침략자들이 러뜨린 피멸의 비명이어

세계제국주의연합세력도 그 붉은 화살표를 당할수 없었거늘 백수십년전쟁사를 자랑하는 강대성의 《신화》도 무적의 《영예》도 멸망의 천길나라에 곤두박쳤다

미제의 《공중우세》가 비행기사냥군조에 박살났다 세계의 철갑들이 땅크사냥군조에 걸려 죽량이 되고 고지에 끌어올린 직사포란에 맞아 세계대전에서 만신창원 미제

수령님의 신묘한 주체전법에 미제의 《하기공세》, 《신공세》...

4성, 5성장군들의 무수한 창안품들은 모두 《하락공세》, 《신공세》 가는 곳마다 천길만길 《함정물》

전쟁의 승배는 수적우세 무장장비의 우세로 가르지 않음을 력사앞에 똑똑히 보여준 수령님 작전지도의 붉은 화살표 그 붉은 화살표들은 미제에겐 무덤으로 가는 길 우리에겐 승리의 이 광장으로 오는 길

하기에 외국의 한 인사는 말했더라 서방의 이름난 장군들의 두뇌 합쳐 승리를 장담하던 그 많은 작전도들 신비한 지략으로 휴지장 만드신 조선의 김일성장군 그이는 군사의 영재, 강철의 령장이 시라고

그렇다! 인민에 대한 한없는 믿음 불패의 지략과 담력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 그이는 곧 우리의 승리이시었으니

누구나가 알았다 그이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그이만을 따라야 승리의 광장으로 갈수 있음을

그 누가 말했던가 철과 철이 맞부딪치는 전쟁은 사랑과 인연없는것 오로지 명령과 파괴, 죽음과 희생 만이 전쟁의 유일한 성격이라고

그러나 조국해방전쟁 그 3년의 갈피갈피 번져보라 거기엔 그 어느 전쟁사에도 없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 그 어떤 명령으로도 이룰수 없는 크나큰 승리의 비결 적혀있노니

우리 전투원 한사람한사람은 모두가 귀중한 보배들이라 하시며 벌써 선기가 나눈것 같은데 더운 밤과 따듯한 국에 잠자리도 춤지 않게 해주라고 어버이수령님 1211고지로 걸어주신 전화

세계여, 너는 보았거나 총포란이 아닌 풍을 싣고 군용차들이 전선으로 달린 그런 전쟁 불결이 치솟는 전선을 지적에 두고 병사들이 웃음을 날린 화선휴양소

아직은 전쟁의 운명을 두고 누구나 가슴을 팽팽히 조이던 그때 포연속에서 그려지던 전후복구건설 설계도 대학의 교정으로 세계축전마당으로 들어서던 싸우는 고지의 병사들

그 신념, 그 사랑에 목매여 불뿔은 적화점 몸으로 막은 병사 두팔 두다리 다 잃고서도 입으로 증기압철 누르고 수류탄을 물고 적적으로 내리굴던 그런 영웅들 천이던가 만이었던가

명령으로는 키울수 없는 이런 영웅들 우리 수령님 사랑으로 키우셨어라 력사에 류례없던 조국해방전쟁 력사에 류례없는 사랑으로 이기셨 어라

병사들에겐 용맹을 주고 인민들에겐 승리의 희망을 준 사랑 넘넘의 겨례를 다는 모르리 전화의 나날 그 사랑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뜨겁게 바쳐졌는지

서울인민들의 땀감을 위해 병사들로 별목전투 조직하시고 몸소 운반로정까지 가르쳐주신분 누구신지 청계천가 판자촌사람들에게 군량미까지 돌려주신분 누구이신지

의용군출신의 비행기사냥군조 영웅 병사 그가 두고 온 가족들 적구에서 데려 오도록 하시고 후대들에게 민족의 문화재를 넘겨 주시려 우리 수령님 포화속에서 회한한 구출작전도 펼치 셧거니

이런 뜨거운 조국애 열화같은 민족애로 침략자들이 지른 전쟁의 불길 꺼버 리신 우리 수령님은 진정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백악관은 비명 질렀다 조선전쟁은 잘못 택한 시간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된 전쟁이라고...

이렇게 서산락일로 처박혔어라 백수십년 패전을 몰랐다는 미국 우리 수령님앞에 무릎 꿇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함복도장 찍었다!

× ×
수령님노래로 뜨거운 이 광장에 이 아침 더더욱 사무쳐오는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들려오누나 처억- 처억- 철갑의 대오 보무당당히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께 경례를 드리며 굽이쳐가던 그 열병대오의 발걸음소리

백두산산정에 서게신듯 열병식단상에 군엄히 서시여 해빛같은 축복을 안겨주시던 그이의 힘찬 목소리

-영웅적 조선인민군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오라!

그 열병광장에서부터 시작되던가 아니어라 전화의 날 최고사령부에서 수령님 주신 총대 한생 신념의 기둥으로 받아안으신 백두산의 아들

그날을 생각하면 추억은 절로 숨엄해지더라 나포된 《푸에블로》호 내놓으라미 미제가 미처날땀 때 -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수령님 그 무비의 담력으로 장군님 그 필승의 배짱으로 미제의 사죄문 받아낸 열병대오

《핵사찰》 강요하며 감히 《제재》와 《압살》을 떠들 때 에도 -전국, 전민, 전군이 준전시태세에로! 장군님의 그 단호한 기상으로 미제에게서 담보서한 받아낸 열병 대오

이 광장으로 년년이 들어섰더라 승리의 열병대오들이 우리 전승세대의 뒤를 이어 사랑- 팡- 지축을 울리며 승리! 승리를 누리에 떨치며

힘이 없으면 약자가 되고 약자는 제국주의에게 짓밟혀 제국주의의 노예로 살아야 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 무슨 힘으로 미제의 술줄 움켜쥐고 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왔던가

침략자들이 포위환을 치고 조선은 다시 일어 못 선다며 조선의 7.27은 옛말로 될것이라며 《3.3.3붕괴론》을 내들리던 그때

침략자들이 총을 내대면 대표를 내대시는 강인담대한 기상과

배짱으로 밀려오는 침략의 검은구름 단호히 쳐갈기시며 우리 장군님 김고걸으신 선군의 길 그 길은 수령님의 7.27을 영원한 승리로 이어가신 길

감회도 깊은 여기 김일성광장에 서니 생각도 많아라 우리 장군님 선군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전승 60돐 어이 생각할수 있으랴

민족을 지키고 조국을 지켜준 그 야전차의 불빛 아니었다면 우리 어찌 오늘의 이 광장에 다시 설수 있었으랴

가슴에 젖어와라 ...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 준대도 회망 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

이 노래 부르고 부르시며 우리 장군님 수천만리 선군령도의 길 김고 또 걸으시었나니

장군님의 그 희망은 수령님 맡기고 가신 내 나라, 내 조국 겨례의 무궁한 행복이었고 조선의 통일번영이었나니

그 의지 그 넉넉 백두산총대에 비껴안으시고 치렬한 반미대결전을 련전련승으로 이끄시며 이 조선에 선군승리의 세월 끝없이 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님! 수령님 모시여 김일성광장은 승리의 광장 장군님 모시여 김일성광장은 영원히 백승을 펼치는 승리의 광장

아, 불멸의 태양기가 휘날리는 여기 김일성광장은 수령님과 장군님 모시여 60년 승리만이 아로새겨진 광장 위대한 승리의 열병광장이어라

× ×
그리움의 추억만이 빛나고있으랴 그 그리움의 추억속에 오늘의 영광이 눈부시게 빛나는 여기 김일성광장

낮과 밤이 바뀌는 세월속에 손저 어 답 레 를 보 내 시 는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불수룩 령장의 그 모습은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모습

지금도 정녕 꿈만 같아라 이 광장에 그이를 모셨던 태양절 100돐경축 열병식 삼천리 저 한글까지 힘차게 울리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그이의 음성 수령님음성인듯 곱같이 들으며 우리는 확신하지 않았던가 그이 계시여 전승의 력사는 영원하리라하는것을

담력도 배짱도

지략과 슬기도 인덕과 풍모도...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신 원수님은 선군조선의 강대성의 상징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심을 우리 굳게 믿고있거니

수령님 전승의 업적 장군님 선군의 그 업적 만대에 길이 빛내이실 그 용지를 안으시고 조국앞에 인민앞에 나서신 우리의 최고사령관

가렐쳐졌던 전쟁의 3년세월 다 걸어보시는가 웅장하게 일떠서는 전승기념관 원수님 오래도록 감회깊이 돌아보시던 그날

이 로병의 가슴 벽차올랐어라 승리한 고지의 전호가에서 수령님 뵈옵는것만 같아 가슴은 마냥 울렁거렸어라

전화의 그 시절 병사의 마음으로 경건히 원수님 우러르던 그날 온 나라의 로병들 천만군민은 심장으로 절감하였나니 7.27을 길이길이 빛내이실 원수님의 그 필승의 신념과 의지

어찌 전승기념관에서만이라 무도와 장재도 관문점과 오성산초소들에서 그 신의 그 의지가 용암처럼 흘러넘쳤거니

적진이 눈앞인 오성산정점에서 원수님 작전도를 펼쳐드실 때 아, 그 모습은 총포란이 작렬하던 1211고지 지혜산에서 승리의 작전도를 펼치시던 수령님모습

우리는 보았어라 최전연의 산밭들을 굽어보시며 원수님격멸의 기상을 펼치시던 선군령장 장군님의 모습을

수령님의 자욱자욱 장군님의 걸음걸음에 자신의 심장을 잇대이고 원수님 가고가신 최전연길 그 길은 그 어떤 적들도 움쩍 못하게 백승만을 찌며 가신 길 그 길은 조선의 7.27을 승리의 광장으로 이끌어오신 길

그 길에서 우리는 들었다 단호하게 천명하신 원수님의 승리의 선언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으로!

오, 그것은 그것은 세월의 끝까지 이 조선 승리를 떨치리라는 선언 그 세월속에 우리의 7.27 무궁토록 빛나리라는 선언

보라, 세계여 그 신념과 그 의지로 노도쳐 노도쳐 나아가는 아, 내 조국의 불패의 힘

열병광장의 주석단에 높이 서신 위대한 선군령장을 태양으로 우리 르며

나는 확신하노라 처억- 처억- 광장을 진감하는 열병대오의 힘찬 발걸음소리 삼천리 저 한글까지 힘차게 울리 리라는것을 승리의 굳기로 드높이 울리리라는 것을

아아, 흘러온 승리의 력사와 함께 영원할 승리의 미래가 보여오는 김일성광장이여 나는 본다, 영원한 승리의 7.27을 최후승리의 열병광장을 본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것이다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철회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평화대행진 진행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과 파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국제평화대행진이 24일 평양에서 개성까지 진행되었다. 국제평화대행진에 앞서 출정식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교양마당에서 있었다. 세계 여러 나라 친선 및 련대성단체, 국제기구대표

단, 대표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외국인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해외동포들이 출정식에 참가하였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최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

위원회 의장, 판계부본 일군 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출정식에서는 피터 우즈 조선평화통일지지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 이 연설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숙위원장이 이어 행진의 시작이 선로

가 주악되었다. 《모든 반제 자주력량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자!》, 《우리는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요구한다!》, 《미국은 부당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등의 글발이 씌어진 프랑카드들을 든 참가자들이 행진을 시작하였다. 연도에서 군중들은 통일구

호들을 부르고 꽃다발과 손을 흔들면서 외국의 깃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여 리치는 그들의 우렁찬 웨침은 진보적인류의 한결같은 넉넉을 반영하여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이날 국제평화대행진 참가자들은 관문점을 참관하였다. 본사기자



승리는 정의와 애국의 편에 있다



가렬히 싸웠던 1950년대 조국해방전쟁시기 역사의 증경자인 양 공화국 군대의 불굴의 모습 그대로 거연히 솟아 있는 1211고지, 수많은 봉우리들을 거느리고 우뚝 솟아 있는 1211고지는 지금도 미국의 거대한 코대를 꺾어놓은 승리의 고지, 영웅의 고지로 공화국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고지에는 다른 이름도 있다.

조선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던 침략의 고승들이 악몽속에 지어놓은 《상심령》, 《함정골》이다. 그 유배를 본다. 1951년 9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은 《하기공세》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전선서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벌였지만 하

서 전선동부에 대병력을 집결하여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점령하기 위한 《추기공세》를 감행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해안에 상륙할 저들의 부대들과 합세할 목적으로 그 어떤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1211고

지의 무리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었다. 1211고지방위자들이 벌린 강도에 의거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은 현대적무기를 가진 침략자들의 수적 및 기술적 우세가 맥을 못추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무서운 공포

를 안겨주었다. 《상심령》이라고 불렀으며 고지아래의 골짜기에 한번 들어서면 살아 나오지 못한다고 하여 《함정골》이라고 부르면서 공포에 떨었다.

그야말로 1211고지는 침략자들에게 수차례의 큰 참패와 죽을 악몽만이 되살아나게 하는 공포의 대명사였다. 그 《상심령》, 《함정골》에 묻힌 침략자들의 유해들은 지금도 공포에 질려 이리저리 배회하며 미국에게 호소한다. 그때의 교훈을 잊지 말라. 만일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때에는 이 땅 어디나 그들의 《함정골》, 《무덤골》이 될 것이다. 리명진

《상심령》과 《함정골》이 전하는 이야기

미국과 남조선군부세력들이 정전협정 체결 60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고 부끄러워할 대신 그 무슨 《잊혀진 승리》로 자화자찬하면서 침략전쟁열기를 고취하고 있다.

하다면 지난 조선전쟁에서 승자는 누구이고 패자는 누구인가. 패전장군들의 일부 고백을 보기로 한다.

《내가 정부의 지시를 집행하면서 얻은 것이란 승리하지 못한 정전협정문에 수표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 보잘것 없는 명성이다.》(전 《유엔군》사

미국의 고백

령관 마크 클라크) 《잘못 고른 시각에 잘못 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적)에 대한 잘못된 전쟁을 하였다.》(전 미합참의장 오마르 브래들리)

《미국은 조선에서 무엇 하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문을 발로 찼으나 방안에 들어가는 일도 안되고 나오는 것도 안된 것이다.》(전 캘리포니아주둔 미군사단장 할레르슨)

《신화는 깨어지고 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다.》(전 미국주장관 마셜)



수자로 보는 패배상

미국이 조선전쟁 3년간에 당한 군사적 손실은 실로 막대하다.

- 미군 40만 5 498명 포함하여 156만 7 128명 사상 소로
- 격추적상로 희생당한 비행기 1만 2 224대
- 격파로 희생당한 탱크, 장갑차 3 255대
- 격파로 희생당한 각종 포 7 695문
- 격침격파당한 함선 및 선박 564척

본사기자



새로운 모략극 - 《잊혀진 승리》

미국에서 조선전쟁 60년이 되는 올해부터 7월을 《잊혀진 승리》로 기념한다고 한다.

1950년 조선전쟁은 미국에 있어서 《역사의 고아》,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웠으며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7월 27일에는 전국적으로 조기를 띄워왔다.

그러던 미국이 《잊혀진 전쟁》을 《잊혀진 승리》로 《기념》한다는 것이다.

과연 조선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할 수 있었는가?

3년간의 조선전쟁에 미국은 자기 나라 특유의 3번의 1. 공군의 5분의 1, 2. 평양함대의 대부분을 투입하였다.

거기다 《유엔》의 간관을 들고 15개 추종국가와 남조선군, 지어 패망한 일본군국주의자들까지 끌어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벌어진 태평양전쟁 4년 동안에 얻은 손실의 2.3배에 달하는 치명적 타격을 당하였으며 미군만도 40만 5 490여명이 사상 소로 되었다.

《하늘의 제왕》이란 전략폭격기 《B-29》가 날개 꺾인 박쥐신세가 되고 《바다 위에 떠다니는 섬》이란 《블리토》호가 불과 4척의 어뢰정에 의해 물고기방이 되었으며 《상승사단》

이라던 미24보병사단이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 녹아났다.

전쟁사상 최초의 고전을 겪은 미국은 3년 동안 대통령 이 바뀌고 《유엔군》 사령관이 바뀌고 교체되는 전무한 비극을 겪었다.

종당에는 항복서와도 같은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당시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나는 적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며 《우리는 적(인민군대)이 패배당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남아 있다는 의미에서는 패배를 한 셈이다.》라고 실로 하였다.

7월 27일은 미국에 있어서 《수치와 절망의 날》로 되었고 언제부러인가는 이날에 전국적으로 조기를 띄우게 되었으며 1950년 조선전쟁은 《역사의 고아》,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게 되었다.

100여차례의 침략전쟁에서 단 한번의 패배도 몰랐다는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처참하게 깨어지고 말았다.

이런 수치스러운 패전사를 《승리》로 묘사한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패자가 《승자》로 둔갑하는 미국이 망명든 이 《기념》 놀음을 보면서 20세기 중국의 작가 로신이 쓴 《아큐정전》의 아큐를 다시 보는 듯하다.

늘 현실착오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모욕과 매를 당하고도 자기는 맞은 눈이 아니라 때린 눈이라고 스스로 위안했다는 아큐, 인류의 문명이 우주를 나는 21세기에 미국은 몽매한 아큐식 《정신승리법》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왜 갑자기 《잊혀진 전쟁》을 《잊혀진 승리》로 스스로 추어올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자.

미국에는 한때 이런 말이 있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인들의 머리속에 오래 동안 지배한 성구처럼 되어 있었다.

1941년 12월 8일, 미국은 일본의 공격으로 불과 2시간 만에 태평양함대 소속 진함 5척을 비롯한 전투함선 20여척이 격침, 파괴되고 비행기

480대를 잃었다.

그리고 2 400여명의 사상자와 1 170여명의 부상자도 생겨났다.

당시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12월 8일을 《치욕속에 기억될 날》이라고 하였고 미국인들속에서는 《진주만을 기억하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진주만 공격을 저들의 침략적인 요구실현에 이용된 미국의 계략은 씩 후에야 알려졌다.

미련방수사국은 진주만 공격사건 관련 정보를 수개월 전에 입수하고도 묵인하였으며 미해군은 일본군의 송신 내용을 이미 파악하고도 모른체 하였다.

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명분을 찾고 있던 미국은 자국대 인민들을 자극하려고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사전에 알고도 모른체 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교수는 《전쟁에 개입하려던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재단이 필요했다. 그것도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피해가 클수록 여론이 더 격해질 것을 노리고 루즈벨트 정부가 공습당일 진주만항공정찰을 취소해 공습이 성공하도록 했다.》는 것

이 바로 미국이 노린 음모의 내막이었다.

《잊혀진 승리》 조선전쟁을 《잊혀진 승리》로 《기념》 하려는 것은 진주만 사건과 같은 모략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념식》이니, 《열병식》이니 하면서 폐전을 《승전》으로 분칠하여 미국인들속에 공화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저들의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의 둘째로 계속 내세우기 위한 데도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지는 조선전쟁 관련 《기념관》 개관식이라든가, 여러 《기념식》에 남조선의 보수세력을 끌어들이거나 남조선에서 벌이는 《기념》 행사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것이다.

패배를 《승리》로 치장하기 위한 분별없는 놀음이 얼마나 광적인가를 보여줄뿐이다.

한가지 미국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조선민족에게 있어서 1950년 조선전쟁은 미국을 타당한 전승의 환희와 함께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세세년 후대들에게 퍼는 물의 이야기로 전해야 할 악몽이라는 점이다.

《설사 그때들애 있는 것이 어린이나 로인이라 할지라도 그때들의 손이 떨려서 는 안된다. 죽이라!》

시, 대결과 분열의 반백년 이상을 강요하게 한 조선전쟁이 미국이 《기념》하려는 《잊혀진 승리》라면 우리 민족은 세대와 세기를 이어 계산할 것이다.

미국은 특특히 알아야 한다.

지금은 1950년대가 아니다.

만일 미국이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전쟁은 1950년대처럼 3년 동안 걸리지 않을 것이며 미국은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6월이 가면 7월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제2의 6.25 뒤에 는 공화국의 영원한 승리의 7.27이 있다.

김정혁



《잊혀진 승리》의 모략극